



책 속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 100배 알기

자연을 닮은 영혼 인디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메리카 인디언(American Indian)을 서부영화나 아이들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거칠고 호전적인 야만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해 원주민의 이름을 인디오(Indio: 스페인어로 인디언이란 뜻)라 부른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름은 뜻하지 않게 인디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는 백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문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속에 자연과 야생의 삶은 점점 변방 끝으로 몰렸다. 백인들이 만든 어넌 오만과 편견의 현대사를 거치며 그들의 순수한 삶과 역사는 사라졌지만, 이제 인디언은 조화로운 인간의 전형으로, 자연의 사상가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귀함을 간직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의 지혜와 사상을 배우고자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도 논리적인 서술로 이끌어낸다. 자연에 대한 막연한 신비가 아닌 실제적 삶의 의지와 영적인 교훈들도 들려준다. 또 아기를 가진 인디언 여성의 태고부터 아이의 탄생과 교육, 놀이, 그리고 인디언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와 도덕관념, 종교, 전통에 이르기까지, 인디언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었으며, 고결한 정신 세계를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강조하고 있다.



인디언의 영혼 오혜승 지음 | 류시화 옮김 | 1만1천원

오혜승씨가 어린 시절 사촌 여동생 오혜세와 토론한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인디언 교육법의 좋은 예이다. 할머니는 두 어린아이에게 “도마뱀은 어떤 부족에 속한 동물이지?” 하고 질문한다. 두 어린이는 자연의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혜세는 도마뱀을 구체적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인디언에게 교육은 온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자연에 있다. ‘위대한 신비’라는 절대자는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자연 속에 깃들여 있다. 자연이 신전이며, 바람이 그의 손길이다. 어머니 대지와 위대한 신비가 펼쳐놓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디언이 사는 방식이다.

인디언의 언어에는 문자가 없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신비가 깃든 자연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겼다. 인위적인 이탤표가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디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은 시간에 대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그들에게 시와 분으로 쪼개진 시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 만나러 올까요?”라고 묻는다면 “해가 저 나무에 걸리면”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시간을 자연스러운 것, 혹은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시간은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시간을 대하는 인디언의 태도와 그들의 말을 보고 싶다면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 **인디언 여성의 태고**= 인디언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순결한 언행과 명상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열려 있는 영혼에게 그가 ‘위대한 신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눈동자에 새기며 홀로 생활하는 것을 찾아내 원칙으로 삼는다.
- **인디언의 교육**= 인디언들에게 학교 건물과 책과 정기적인 수업 시간은 없다. 하지만 인디언 아이는 자연의 방식으로부터 배움을 얻었다. 숲이 곧 학교였다. 언제나 자연 세계와 가까이 접촉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 생명체들과 다정다감한 관계를 맺는다.
- **인디언 사회의 규율**= 인디언들의 일반적인 생활 규칙은 진지함과 예의 바름이다. 인디언들은 누구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유물과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습관적으로 조용하고 질서 있고 단정한 태도를 지켜나간다.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음식과 성적인 관계를 엄격히 절제하는 한편, 꾸준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킨다. 특히 금식 수행과 함께 육체를 지치게 함으로써 지나친 성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
- **인디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가 문명의 척도라고 얼굴 흰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인디언 여성만큼 확실한 위치를 차지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도덕성과 혈통의 기준이 여성에게 주어진다. 아내는 남편의 이름이나 남편 부족을 따르지 않으며, 아이들은 엄마족 부족에 속한다. 가족의 모든 재산이 아내 소유이고, 모계를 따라 혈통이 이어진다. 그리고 집안의 명예는 부인의 손에 달려 있다.
- **인디언의 종교**= 인디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들은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얼굴 흰 사람들이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디언들은 태양을 숭배한다. 인디언들의 눈에는 태양과 대지가 명백히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우주의 아버지인 태양은 자연의 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신은 다만 이 대지 위에서 올바르게 살고 겸허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자신의 품 안에 받아들일 뿐이다. 그것이 인디언들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1만원

정말 요즘같은 시대에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년 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를 얘기한다면, 책 제목부터 솔깃했다.

이 책은 대표적인 경제논객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씨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체된 한국은 기업이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시장 논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기업·국가는 냉철하게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특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10년 뒤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주력산업 변화와 차이나 쇼크, 노동조합 약진 등 경제 현상부터 진보와 보수의 갈등, 대미 외교, 세대간의 문제까지 아우르면서 한국이 투자국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우수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중산층의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낮아지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며 다국적 기업과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낙관론자가 본 어두운 미래경제

청년실업, 남들보다 먼저 해외로 눈돌려라

이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가 정치논리 등에 위협받으며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잃기 때문. 따라서 자유경쟁과 시장논리를 회복하고 집단보다 개인, 민족주의보다 글로벌리즘, 하향평준화보다 경쟁을 통한 상향평준화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경우에도 ‘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는 개인과 시장의 가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경우 개인이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 전통이 역사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근본 기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마을 정신중의 하나인 ‘자조(自助정신)’이다.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졌던 아버지 세대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정신은 ‘나눠먹기’로 바뀌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향후 10년에 대해 이렇게 전망한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진보 진영은 특세한다. 어쨌든 이런 특세는 10년 이상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의 종교중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한국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대목이다. 나는 직장이 호 텔인 탓에 외국인들을 하루에도 수십이 마주대한다. 가끔씩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 굳이 10년까지 안가더라도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방향을 선화해서 남들보다 10년 먼저 해외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은 어떨까.

정해순 (쓰레지던트호텔 지배인)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꿈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첫날'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대행스님 범어 | 해원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펜티만 입고 공중취조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족·효림·현정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배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애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바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었던 지족 스님, 꼬미 나도 목 안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우묵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족·허주·수안·정운·원속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정 스님, 20여 년 가까이 정좌불과, 오후분식을 해오고 있는 자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족스님 외 지음 | 448쪽 | 12,000원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禪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